1. 위성 영상을 활용한 북극 해빙 예측 발표를 맡게된 김현태입니다.
2. 저희는 데이콘, 극지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북극 해빙 예측 대회에 참가해보고 이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구현한 코드를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느꼈던 부족했던 점과 보완하고 싶었던 점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는 ESG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과감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목표를 밝히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실제로 근 50년간 빙하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고 이를 예측해보는 경험을 통해 심각성을 확인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4. 저희는 비전공생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데이터 사이언스를 처음 배우고 있고, 기술 구현에서 부족한 부분은 Inflearn과 Youtube 생활코딩, 노마드코더 강의등을 통해 배워서 보충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CNN, VGGNet, RESNet, RNN 총 4가지를 Google Colab을 활용하여 구현해보았고, 이를 Html 템플릿을 활용하여 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서버는 아마존 클라우드 EC2 서비스를 활용하여 Linux Ubuntu OS에서 Apache로 구현하였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모두 Github을 활용하여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마크다운 파일로 기록했습니다.